

# 高等學校 國語科 教科書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金 奉 郡\*

## I

교과서는 教育課程에 설정된 教育목표와 학습내용과 평가관점에 따라 편찬된다. 教育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시대 사회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지고 거듭 고쳐지되, 거기에는 일정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은 물론 미래에 대한 민족적·범인류적 조망과 이상이 집약적으로 진술되며, 교과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教育과정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네 차례에 걸쳐 전면 개편한 바 있으며, 현행 教育과정은 教育개발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1981년 12월에 문교부가 심의·확정·공표한 것으로서 1984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sup>1)</sup> 이 教育과정에 따라 1984년 1학년 국어 I 교과서가 나온 것은 1984년 3월이고, 이듬해에는 2학년, 금년 1986년에는 3학년 교과서의 순서로 3개년에 걸쳐 고등학교 1종(국정) 교과서인 국어 I 교재가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실업계 국어 교과서가 없어지고, 한문은 단일교과로 독립했으며, 문법은 국어 I 교과

\* 성신여대 교수

1) 韓國中等教育協議會, 「新教育課程解說」(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4), 2면 참조.

서의 ‘학습문제’ 부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과서를 따로 내지 않기로 했다. 예전에 검인정 교과서라 하던 2종 교과서인 현대문학·작문·고전 교과서가 국어 II 교재로 독립되어 처음 나온 것은 1985년 3월이며, 이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이같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교육학자·교육행정가·교과교육·전문가·일선 학교 교사 등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인사들의 식견과 학문적 충고가 집약되었음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문교부가 계획, 위촉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건국 후 다섯번째 맞이하는 중대사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①경험중심 교육과정 ②교과중심 교육과정 ③학문중심 교육과정 ④인간중심 교육과정의 특색을 보이며 개정되어 왔다.<sup>2)</sup> 1981년에 공포된 현행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새 교과서는 예년에 비하여 전일보한 면이 있다. 국어 I 교과서의 경우, 예년 교과서의 잡지식 편집방식을 극복하고 단원별 편집방법을 취하였다. 단원은 글의 갈래를 기준으로 하고, 각 단원은 학습목표의 진술-학습 자료(제재)의 제시-학습평가의 3단계로 조직했다.

여기에 주어진 과제가 국어 교과서를 理念의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는 작업이므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국어과 교육의 본질과의 충돌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국어과 교육 이념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 다음 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이념적 덕목의 줄기를 잡고 이런 줄기들이 각 단원의 학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면, 아울러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 II

의도적인 교육으로서의 국어과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많은 논란은 뒤로 미루고 결론부터 말하면 국어과 교육은 언어교육이다. 국어과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말하기·듣기와 읽기·쓰기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이를 ‘표현·이해’로 하고, 여기에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에 관한 지

2) 朴鵬培, “國語科 教育課程의 構成體制와 學校級別 內容領域 區分 考察”(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국어과·한문과 교육개정을 위한 세미나, 1986. 5. 20~21), 36면 참조.

식과 작품감상을 위한 문학지식을 별개의 학습내용으로 설정했다. 국어과 교육의 본질에 관하여 가장 선명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용주의 “언어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라는 글이다. 그는 국어교육이란 “언어인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내용은 “음성이나 문자에 의해서 행사된 국어와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문제”라고 못박는다.<sup>3)</sup> 이같은 개념규정에 따르면 현행 교육과정의 언어지식 항목은 ‘국어의 효과적인 사용’에 이바지해야만 그 존재이유를 확보할 수 있는 난처한 입장에 놓인다. 아울러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기초를 두지 않는 문학교육이 국어과 교육인가 하는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된다.<sup>4)</sup> 김윤식은 문학교육을 국어과 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주저하지 않는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의 전통을 관습적으로 수용한다.<sup>5)</sup> 그는 문학작품의 언어적·미학적·이념적 요소를 포괄하여 국어과 학습의 내용요소로 다룬다. 김인환은 「문학 교육론」에서, 문학이 언어의 예술이라고 해서 언어만을 중시하여 교육하려는 태도는 그 언어를 둘러싸고 움직이는 체험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문학교육을 포함한 국어과 교육은 생활과 경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다.<sup>6)</sup>

이런 논란이 비등하는 자리에 이념교육의 문제까지 가세한다는 것은 교과교육으로서의 국어과 교육의 독립성·자율성·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국어학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짐지우는 일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교육이 기술적·전략적 가치에 기울어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존엄성이나 정의니 자유니 사랑이니 하는 지상과제를 외면하고 비인간화의 수렁으로 매몰될 위기에 처하였다는, 다소

- 
- 3) 李應百 외, 「國語科 教育」(서울: 韓國能力開發社, 1975), 38~70면 참조.
  - 4)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세미나 자료에서 李膺周·金恩典의 논쟁부분 참조. 문학 전공자인 金恩典 교수는 문학교육의 좌표를 국어과 영역 안에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논지를 전개했고, 토론자인 金容稷 교수 역시 문학비평의 교육적 관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 5) 李應百 외, 위의 책, 71~104면 참조.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같다.(飛田多喜雄, 「國語教育方法論大系」 1~12, 東京: 榮泰印書館, 1984 참조).
  - 6) 김인환, 「문학교육론」(서울: 평민사, 1978) 참조.

과장되었음직한 충고<sup>7)</sup>를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교육의 마지막 목표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고, 그 목적은 인류의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현대교육은 교과외의 개별성과 통합성, 학문의 분화와 종합, 가치중립과 가치지향의 모순된 에너지를 어떻게 止揚, 통합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할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국어과 교육의 기반은 언어의 표현과 이해다. 그렇다고 하여 이념이나 가치관을 국어과 교육의 제재에서 분리시키려 하는 것은 샤일록이 피를 흘리지 않고 살만 빼어내려는 장면처럼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理諭'은 물론 적극적인 학습내용 요소가 아니다. 이념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국어과의 모든 제재, 글의 갈래 속에 숨쉬며 잠복하여 있다.

그런데 '이념'이란 말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일단 "무엇을 최고로 하는가에 대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실락하지 못한 사전적 정의를 따르고, 이념을 의식·정신·사상·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무난 하겠다. 교육학에서 자주 쓰는 '가치관'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데올로기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념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잠시 대한민국 헌법·교육법·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전문은 대한민족의 긍지로서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평화애호의 전통을 열거한 다음, 실현목표를 민족과 국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에 두고 있다. 또 교육법은 '弘益人間'을 교육의 최고이념으로 삼고, 개인이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력을 기르며 공민으로서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헌법과 교육법의 정신지표는 국민교육헌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을 생존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하며, 이를 자유세계 이상실현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통일조국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품고 근면한 국민으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국민교육헌장의 기본이념이요 정신적 지표다. 국어과 교육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

7) Robert Ulich. *The Human Career*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柳炯鎭역, 「人間과 教育」(民衆書館, 1961), 32~33면 참조.

여 개정된 새 교육과정도 국어과의 읽기 자료와 문학작품 선정의 기준이 될 이념 및 가치관의 덕목 7가지를 제시했다. 학생들의 신념 및 가치관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이다.

- ① 정직 · 책임 · 근면 · 진취 · 협동
- ② 가치에 대한 신념 · 이상이나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
- ③ 다른 사람의 인격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
- ④ 질서 · 규칙 · 법규 · 사회적 관습의 존중
- ⑤ 학교 · 사회 ·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헌신적 봉사정신
- ⑥ 특수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아인식과 민족적 자부심
- ⑦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국가관과 세계관

이 일곱 가지 가치덕목과 이념적 지표들을 민족주의와 보편주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공동체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정립된다.

첫째, 개인과 민족의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및 자기 결정력과 주체성의 지표다. 여기에는 산업사회 인간의 약점인 他者志向(other-direction)과 개화기 이전의 대륙 지향성 및 그 뒤의 서구 지향성이 한국인의 전통 지향성(tradition orientation), 자기 정체성에 그늘을 드리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개재해 있다.

둘째, 인류의 보편적 이상이 되는 가치덕목 몇을 설정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사랑, 경쟁자가 아닌 봉사자 · 희생자로서의 인격, 분리(detachment)나 투쟁이 아닌 만남과 화해의 윤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물론 가족 · 사회 · 국가의 경계를 지나 범시대적 · 범인류적 이상으로서 보편적인 이념의 지표가 될 덕목들이다. 이같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 다아윈주의적 진화론<sup>8)</sup>과 적자생존의 투쟁육, 마르크스적 결정론(determinism)의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소유의 윤리를 정립하고 소유문화가 존재문화를 위협하는 시대의 질환<sup>9)</sup>을 치유해야겠다.

8) 한국창조과학회,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서울:태양문화사, 1981) 참조. 1980년 시카고 대학에 모인 창조과학회 회원들은 C. 다아윈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類推였음을 알리고, 진화론을 반박하는 고생물학적인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9) Erich Fromm의 "To Have or to Be"의 주장을 전용했으나, 그의 견해를 전복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째, 개인의 발전과 안락을 얻기 위하여 공동체의 평화와 복지를 파괴하기 쉬운 개인주의의 결합과 집단의 목표달성을 명분으로 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집단주의·전체주의의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의 정립이 요청된다.

### Ⅲ

고등학교 현행 국어 I 교과서는 詩歌 70편, 소설 8편, 극작품 2편, 수필 13편, 기행문 5편, 전기 2편하여 도합 100편의 문학작품과 설명문 8편, 논설문 9편에 국어지식 8편, 국문학 지식 6편, 합하여 모두 131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중 고시가 45편, 고소설 3편, 고수필 2편, 고전 기행문 1편, 합하여 51편으로서 고전이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고전에 내포된 가치관은 전통적인 정서와 윤리관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교육과정의 제재 선정기준 제6항에 관련되며, 국어와 국문학 지식도 이에 준한다. 즉, 이들 제재는 ‘특수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아인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내포해야 한다는 이념적 지표를 향하게 되어 있다. 논설문이나 설명문은 중심과제나 중심사상이 가치관 또는 이념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교과서의 글 갈래 중 76.3%를 차지하는 100편의 문학 작품의 사상적 배경이나 주제가 역시 가치관이나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이제 위에서 설정한 몇 가지 이념적 지표(의식·가치관)를 국어 I 교과서에 실린 글의 갈래별로 검토하고, 아울러 개선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논설문과 연설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논설문(연설문 포함)은 모두 9편이다. ‘나의 소원·새역사의 창조·언어의 창조와 정리·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조국 순례 대행진’은 민족의 正體性을 확인, 발전시키자는 내용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他者志向性의 세태를 이기고 자기 결정(self-dicision)의 주체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의 논설문은 대개 민족 정체성의 회복과 수호와 그 창조적 전개라는 국가 공동체의 이상을 피력한 것들이다. 특히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과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은 민족

주의와 보편주의의 만남을 위한 지침을 암시하는 글로서 의의가 있다. 논설문의 성격이 개인 윤리나 가치관보다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민족주의나 보편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教條的인 아닌 이념적인 측면에서 쓴 논설문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논설문은 消極概念이나 缺性概念 위주의 否定命題보다 積極概念과 肯定命題를 골격으로 하여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를테면, 논설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말하는 사람 자신이 그의 말대로 실천 궁행하지 않는한 천만어를 나열한다 해도 대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식의 진술은 “말하는 사람이 몸소 그 이 말대로 실천 궁행해야 그가 내세우는 훌륭한 주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이 써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관점에서 보고 민족옹비의 저력을 드높여 서술한 것은 바람직하고 감명적이다. 이런 글이 교과서에 실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시대 한계적인 사건과 요청이 너무 크게 작용한 듯하고 민족사를 정치력·경제력이 주도하는 것처럼 끝맺은 것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개정하게 될 국어과 교과서에는 비교문화·비교사상·비교종교 관계의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꼭 실려야 하겠다. 발달심리학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10대 후반의 고등학교 시절은 思想期임을 우리는 안다. 이 점에서 현행 교과서의 논설문·설명문 및 수필의 내용은 수준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 2) 설명문

교과서에 실린 형식단원으로서의 설명문은 모두 8편이다. ‘인간의 특징’은 자기 정체성 확인에 관련되고, ‘음성언어’는 말하기의 방법으로서 개인의 인격 성숙과 만남의 문제에 연결된다. ‘연극과 영화·문학의 구조·말과 사람됨’은 보편성에, ‘세시풍속의 의미·선인들의 공예·한국의 미’는 민족 정체성 문제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은 필요불가결한 것이 사실이나, 시대와 미래 사회의 요청에 비추어 그 과제와 내용을 더욱 다양화, 심화해야 하겠다. 예컨대 C.P.스노우가 말한 바 있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화에 관한 글<sup>10)</sup>이나 진화

10) C. P. Snow 지음·吳榮煥 옮김, 「두 文化와 科學革命」(博英文庫 154, 1977) 참조.

론과 창조론, 과학과 종교, 전자기술과 인류의 미래 같은 과제로 쓴 설명문이 더 추가 또는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민족 정체성을 밝히는 글도 더 전문화되어 우리 주변의 골동품·고궁·석탑 등의 문화재를 보고 전문가에 버금가는 해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식견이 담긴 설명문이 교과서에 실려야 마땅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 문화’ ‘세계 문화’ 또는 ‘문화’ ‘인류와 문화의 이해’ 따위의 교과가 신설되지 않는한 국어과 교과서가 이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3) 현대시와 현대시조

문학작품은 의식 지향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때 네 개의 位相 중 어느 한쪽 좌표에 위치한다, 즉 ①개인의식과 형이상학적 지향 ②공동체의식과 형이상학적 지향 ③공동체의식과 형이하학적 지향 ④개인의식과 형이하학적 지향이 각각 만나는 위상의 어느 좌표에 한 문학작품은 놓인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시 17편 중 11편이 ①의 위상에 들고, 5편이 ②의 위상에 자리하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①과 ②의 중간을 긋는 수직의 좌표에서 형이상학적인 만남의 정점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깃발·가을의 기도·성탄제·진달래꽃·모란이 피기까지는·나그네·국화 옆에서·승무·서시·꽃·겨울 바다’가 ①에 들고, ‘3월 1일의 하늘·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광야·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가을에’ 등은 ②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현대시조 7편 중 ‘난초·달밤·낙조’는 ①에, ‘나도 꽃말이 되어 살고 싶다·낙화·조국’은 ②에 속한다. 현대시의 ①에 드는 것 가운데 ‘성탄제·진달래꽃·모란이 피기까지는·나그네·국화 옆에서·님의 침묵·승무’는 그 정서나 주제 및 사상적 배경이 함께 민족의 자기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작품들이고, ‘깃발·꽃·서시·겨울 바다’는 인류적 보편성에 더 친근한 것들이라 하겠다. ‘깃발’은 여기(her)가 아닌 저기(there)를 향한 범인류적인 그리움을, ‘꽃’은 존재의 정체성과 만남의 보편적인 의미를, ‘서시’는 인류적 양심과 순결의식을, ‘겨울 바다’는 존재의 고독과 기원과 만남에 의한 종교적인 구원의식을 함축한다. 물론 ‘깃발’ 같은 작품을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낭만적 아이러니(romantic irony)의 표상으로 보아 민족의 정체성쪽에 다



놓으려는 특수한 접근방법<sup>11)</sup>(the particular approach)으로 풀 수도 있고, ‘모란이 피기까지’에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위와 같이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대시조는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학정신과 정서를 내포하는데 ①에 속하는 것들은 자연 친화사상의 면에서 ②에 속하는 것들은 이념과 정서의 함축 및 알레고리의 면에서 정체성을 밝혀 계승하는 작품들이다.

현대시나 현대시조 가운데 소유 또는 소득 재분배의 문제를 주제로 삼는 사회의식, 곧 ③의 위상에 드는 작품은 없다. 이 점이 소위 민중주의 시인들로부터 맹렬한 항의를 받는 이유다.<sup>12)</sup> 우리 헌법이나 교육법,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으로 볼 때 계급투쟁의 논리를 기반으로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작품들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다. 다만 지나친 자연서정과 노골적인 애국·애족 편향의 작품들은 의식이나 이념의 내면화를 훼손하기 쉬우므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평화적인 구원(redemption)<sup>13)</sup>의 소망과 실천욕이 함축된 시를 새로 만들어질 교과서에 실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외설적인 기미가 짙은 시가, 이를테면 고속요 ‘만전춘·쌍화점’이나 사설시조같이 ④의 위상에 드는 작품을 국어 I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을 것이다.

#### 4) 소설과 극작품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서에 실린 소설 8편 중 3편은 고소설이다. 고소설 ‘홍길동전’은 공동체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구조적 모순, 제도적 부조리에 대한 도전 반응으로서 위상 ②에 속하나 반전의 단계에서 ①에 기운 인상을 보이며, ‘춘향전’은 ①과 ②의 위상을 포괄하면서 팽팽한 긴장을 보이다가 결말에 가서 ①로 낙착되어 安住한다. ‘구운몽’ 역시 이승의 부귀와 저승의 복락을 모두 독점하려는 귀족의 헛된 욕망을 보여 준다는, 민중사학쪽의 비난을 사는 작품이다.<sup>14)</sup> ①의 위상에 드는 종교적 판본소설이다. 현대소설 ‘상록

11) C. B. Reaske, *How to Analyze Poetry* (New York: Monarch Notes, Simon & Schuster, Inc., 1966), 12면 참조.

12) 申庚林은 1983년 봄 「教育新報」에다 이런 내용의 抗議書를 연재한 바 있다.

13) Majorie Boulton, *The Anatomy of Literary Studies*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80), 12~14면 참조.

14) 李佑成, “實學派의 文學” (『국어국문학』 16, 1957), 92면 참조.

수'는 그 속에 잠재한 엘리트적 施惠意識과 계몽성이 문제가 되나, 섬기는 삶, 봉사와 희생의 참뜻을 깨우쳐 감동받게 하는 작품으로 ①과 ②의 긴장을 보이다가 ②으로 귀결된다. '금당벽화'는 조국애의 예술적인 승화, 곧 예술정신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밝힌 작품이며, '등신불'은 불교사상에 이른바 '제3 휴머니즘'의 정신을 설정하여 만남과 구원을 그리려 한 작품으로서 ①에 속한다고 보겠다. 이는 '보살행'이 현대적인 의미로 변용된 작품이다. 경쟁·투쟁·소유욕으로 광분하며 증오심이 팽배해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꼭 읽혀야 할 작품이라 생각된다. 희곡 '조국'은 조국애와 효도와의 갈등을 다루면서 결국 조국애로 기우는 위상 ②의 작품이다. 갈등의 논리적 전개나 긴장감의 면에서 치졸하다는 느낌을 준다. 시나리오 '마지막 한 잎'도 예술정신에 의한 '만남'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 것으로 ①에 속한다. 이념을 넘어서는 우정을 통한 '만남'을 그린 소설 '학'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 민족의 동질성을 암시한다. 통일의 실마리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불러온다. 소설 '별'에서는 대자연의 신비와 사랑의 우주적 리듬<sup>15)</sup>이 감지된다. A. 도오데의 천체미학, 사랑의 우주적 리듬 속에서 순결한 만남을 누리는 젊은 남녀의 모습은 현대인에게는 충격적이다. 다만 이것이 고등학교 2학년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수용되는 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 희곡이나 시나리오 작품을 더 실어야겠으나 어떤 작품이 교재로서 타당하냐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맹진사댁 경사' 같은 작품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의 결말이 지체부자유자를 모독하여 반인간주의에 빠진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나고 만다. 좋은 극작품의 출현이 기대된다.

### 5) 수필과 기행문

교과서의 수필 13편 중 '조침문'과 '물'을 제외한 10편이 현대수필이다. 수필 12편 모두가 ①의 위상에 든다. 개인의 정감과 전통정서를 바탕으로 한 私의 수필이다. '가난한 날의 행복'은 부부애를, '설·마고자·고인과의 대화'

15) Ernesto Carthenal 지음·金榮茂 옮김, 「침묵 속에 떠오르는 소리」(서울: 분도출판사, 1977), 31~32면 참조.

는 민족 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에 의한 통시적인 만남과 화해의 길을 보여 준다. 나머지 작품들도 자신의 인격적 성숙과 수직·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역시 '만남'의 관점에서 관조, 사색하며 깨우침받게 하는 작품들이다. '만남과 화해'라는 쪽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나 존재론적 천착이 작용한 깊이 있는 수필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기행문은 우리 문학의 전통 그대로 자연예찬에 기울었다. '피어린 육백리'가 역사성을 길게 품고 폐부를 찌를 법한데, 과도하게 현란한 문체와 지성적 통제가 결여된 걱정 탓에 사상과 주제의 전달 효과가 격감되는 흠을 드러낸다.

## 6) 전기

전기는 청소년의 삶의 태도에 깊은 영향을 준다. 전기는 자기보다 앞서 살았던 구체적인 훌륭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인 까닭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충효사상, 志節정신의 귀감이고, '일관성에 관하여'는 사상의 형세에 따라 '꺼삐딴·리'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경종이 될 전기다. 앞의 글에서 이순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원균을 폄시, 모멸하는 권선징악적 인간관의 기미가 없는지, 잘 새겨 읽어야 할 것이다. 봉사자와 헌신의 생애를 산 사상가·종교인·사회 사업가·교육가·예술가들이 생애가 소개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청소년들에게 '큰 뜻(ambition)'이란 유명인사나 지배자가 되는 데 있다가보다 '남을 섬기며 자기를 바치는 데' 있다는, 봉사자의 윤리와 가치관을 보여 주는 전기문이 아쉽다.

## 7) 언어와 문학의 지식

교과서에는 언어지식 8편, 문학지식 6편 도합 1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것을 설명문·논설문 단원과 분리한 것은 이 글들이 설명문·논설문의 형식을 이해, 작문하는 형식단원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한 내용단원이며, 현행 교육과정에서 언어지식과 문학지식을 독립된 학습내용으로 설정한 때문이다. '언어와 사회'는 보편적인 문제며, '국어의 개념·국어교육의 목표·국어의 특질·우리말이 걸어온 길·중세 국어의 이해'와 '고전문학사(1), (2)·구비문학

과 기록문학·한국문학의 사상적 배경·현대문학사·한국문학의 연속성'은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글들이다.

### 8) 고시가

교과서에는 歌辭까지 합칠 때 모두 45편의 고시가 실렸다. 그 중 고시조가 35편, 상고시가 2편, 한시 3편, 향가·고속요·악장·언해시가 각 1편, 가사가 2편이다. '공무도하가'는 국적에 문제가 있으나 신화성 짙은 서정시이고, '隋將于仲文에게 주는 시'가 '쓰임의 문학'<sup>16)</sup>이라는 점에서 문학의 갈래에 유의하여 적절히 뽑았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갈래를 고루 망라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선정되었다. 이들 고시가 역시 현대시의 경우처럼 대부분 ①과 ②의 위상에 주로 속한다. 시조 1편 외는 매월당이나 교산이나 다산의 사회시처럼 공동체에의 관심을 보인 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문학의 定義나 한국문학의 범위설정의 면에서 편협성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sup>17)</sup> 또 시조나 가사의 주제는 성리 주자학적 이념이요 윤리의 지표인 忠·孝·烈의 志節 정신과 자연친화 내지 도연명적 낙원의식에 대체로 수렴되며, 개인의 정감이나 사랑의 정서를 표백한 것은 희소하다. 주자주의적 주제를 품은 시조만 교과서에 그토록 많이 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 IV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한다.

현행 국어과 I 교과서의 이념과 가치관 반영의 의의와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과 교육의 기본은 언어교육에 있다. 국어과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이해,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육의 목적은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는 데 있으므로, 국어과 교육에서 이념 내지 가치관 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16) 崔信浩, "漢文學의 導入과 定着" (「전통과 사상」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참조.

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Ⅰ」(서울: 知識産業社, 1982), 11~17면 참조.

둘째, 이념 내지 가치관 교육의 기본덕목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교육법 제1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대적·범시대적 이상을 집약, 진술한 국민교육헌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언어교육 제재 및 문학작품 선정의 기준으로 7개항의 가치덕목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 여기서는 이러한 이념 내지 가치관의 덕목을 존중하고, 시대적·범시대적 요청과 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여 몇 가지 정신적 지표를 마련했다. ①개인의 주체성과 민족의 正體性的의 확인과 창조적 계승 ②민족주의와 인류적 보편주의와의 만남 ③분리·경쟁 쟁취·물리적 승리가 아닌 봉사·헌신·화해와 만남의 윤리관 정립과 실천 ④소유문화가 존재문화·정신문화를 압도하는 산업사회적 정후의 치유 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모순을 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류평화 공동체의 건설 등이 주요 지표다.

이 정신지표를 척도로 하여 1984~1986년간에 발행된 고등학교 현행 국어 I 과 교과서의 내용을 단원(글의 갈래)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의 정체성, 공동체의 이상을 지향하는 것은 논설문 9편 중 6편, 설명문 8편 중 3편, 현대시 17편 중 5편, 현대시조 7편 중 3편, 희곡 1편, 고시가 45편의 대다수이다. 개인의 주체성이나 만남을 지향하는 것은 논설문 1편, 설명문 2편, 현대시 10편, 시나리오 1편, 수필·기행 13편이고, 개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형이상학적 지향을 보이며 긴장을 조성하는 중간 수직 표류에 위치하는 것으로 현대시 1편, 소설 8편 모두, 전기 2편 모두이다. 언어·문학의 지식 6편 중 5편이 민족정체성 문제에 속하고, 1편만이 보편성에 편입될 내용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념이나 가치관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현행 국어 I 교과서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경우 시대적 요청이 범시대적 이상을 압도하여 독자인 학생들이 內心 수용하기를 거부하기 쉬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와 보편주의가 조화를 이룬 글이 교과서에 더 실려야겠다. 그리고 정치·경제 주도형 민족옹비의 기상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존재와 소유·민족 예술·민족사상·비교문화·비교사상 관계의 설명문과 논설문의 개발, 선정되어야겠다. 아울러 발달심리학의 도움이 아니라도 10대 후반기의 청소년 시절이 思想期임을 쉬 알 수 있다면, 앞으로 교과서에 실게 될

논설문·설명문의 사상적인 깊이와 수준은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나친 자연서정이나 통곡과 회한으로 점철된 애국·애족 편향의 문학작품은 오히려 이념과 가치관의 내면화·영속화에 장애요인이 되기 쉽다. 교과서에는 존재의 아픔과 개인의 구원과 만남, 평화공동체의 이상을 함축·부각시킨 문학작품으로서 위상 ①과 ②의 긴장을 보이는 것을 더 보충해서 실어야겠다. ‘통일조국의 이상실현’ 같은 것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과 함께 민족의 정서적 동질성 회복쪽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교육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가령 고등학교 국어 I의 2학년 교과서에서 실린 ‘진달래꽃’을 보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 아래서 자란 아동·학생은 ‘이별의 정서와 만남의 문제’라는 각도에서 이 시를 수용, 감상한다. 반면에 북쪽 아동·학생은 아마도 ‘피의 혁명의 상징’인 진달래꽃을 소월이·감상적으로 노래한 탓에 배격해야 할 시로 보는지 모른다. 이 점에서 통일조국의 한 실마리는 전통 정서를 내포한 시각상 교육에서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째, 수필이나 기행문을 통하여 개인이 아름다운 정서에 접함으로써, 심미감을 체득하는 것이 소중하지마는 청소년들에게 인간 존재의 비극성과 존귀성에 대한 파스칼적인 인식의 충격을 체험시키는 일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교과서에는 사상을 천착하는 수필을 실어야겠다.

네째, 감수성과 비판의식이 풍부한 고등학교 학생시절에는 전기문이 끼치는 효과가 크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무엇이 성공이며 어떤 것이 ‘큰 뜻(ambition)’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좋은 전기가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 살인자요, 싸움장이인 히틀러가 위인인지는 몰라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1984년 어느 대학 사회학연구소의 조사 결과<sup>18)</sup>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히틀러를 네 번째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았다는 사실을 교과서 편찬자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인생에서의 성공이 경쟁에 이기는 것인가, 쟁취한 재물·권력·명성인가,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어떠해도 좋은가? 남을 위해 봉사, 희생한 A. 시바이찌, 장기려, 티레사 성녀, 최용신은 어리석었고 불행하고 실패뿐인 삶을 살았는가? 感傷의 정감이나 정치·경제至上主義를 극복한 그 어떤 것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18) 誠信女子大學의 연구 결과임.

교과서 편찬을 맡은 이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서 일을 시작해야 옳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평화 공동체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이념으로서의 인격론(personalism)<sup>19)</sup>을 제안한다. 인격론이 우리의 주체적인 이념 및 가치관과 만나 어떻게 창조적인 전통으로 정착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짐지워진 과제이다.

19) ① 鄭義采, 「存在의 根據問題」(서울:성 바오르출판사, 1981), 428~445면:

② Borden Parker Bowne(“Personalism”, *Masterpieces of Christian Literature* (New York: Harper & Row, 1963) 참조.